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세계·전품목에 대한 보편관세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특정국 타겟 관세보다는 향후 보편관세 도입 여부가 수출 감소의 변곡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 [1] 對중국 10%p 인상 / [2] + 對캐나다·멕시코 25%p / [3] + 추가 보편관세 10%p

중국 관세 인상만을 고려 시(시나리오1) 총수출은 4.1억 달러 감소(-0.1%)로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캐나다·멕시코에 관세를 부과(시나리오2)하더라도, 총수출 2.2억 달러 감소(-0.03%)로 역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국 관세조치에 이어 보편관세까지 단행할 경우(시나리오3)에는 대미 수출은 7.9% 감소, 대중국(1.0%)·캐나다(3.2%)·멕시코(11.5%) 수출도 감소하며 총수출은 132.4억 달러 감소(-1.9%)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율은 주요 30개국 중 4번째로 영향이 적었으며, 독일, 베트남보다 타격이 적은 점은 긍정적이다. 대미 아웃리치 등 민관 합동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 1. 배경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고율 관세 부과 예고\*

\* 동 보고서는 '25.02.05까지 발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 트럼프 美 대통령은 대외수입청(ERS)\* 신설을 공언(1/20)

\*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 관세를 비롯한 해외 원천 수입 징수 총괄 기관

### ▶ 지난 2월 4일 對캐나다·멕시코 관세는 30일 유예조치, 對중국 수입 전 품목에 대하여 10%p 추가 인상 단행

#### • 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94~)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3월 초 25%p\* 관세 부과 가능

\* 캐나다산 에너지의 경우 10%p

### 미국의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주요 관세조치 추이

일자	중국	캐나다·멕시코	비고
'18.7.6.	중요 제조기술 관련 제품 25%p 관세 부과	-	-
'18.9.24.	소비재 다수 10%p 관세 부과	-	'19.5.10 인상 (10%p → 25%p)
'24.5.14.	301조 대중 수입 관세 인상 발표 (반도체, 태양광: 25%p → 50%p) (전기차: 25%p → 100%p)	-	'24.9.27 발효
'25.2.1.	전 품목 10%p 관세 인상 발표	25%p 관세 인상 발표 * 단, 캐나다산 에너지는 10%p	행정명령 서명
'25.2.3.	-	행정명령(2/1) 30일 유예	3월 초 발효 예정
'25.2.4.	전 품목 10%p 관세 인상 발효	-	中 보복조치 발표

자료 : 美 백악관, 언론 종합

▶ 미국은 캐나다에 대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10%p)을 적용할 예정

- 캐나다는 미국의 에너지 수입대상국 1위로, 미국 원유 수입의 58.5%, 천연가스 수입의 100.0% 공급\*

\* 미국은 천연가스 약 90%를 LNG가 아닌 PNG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어 PNG 기준으로 계산

- 멕시코는 미국의 원유·천연가스 수입대상국 2위이자 석유제품 수입대상국 3위

#### 미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대상국('24.1~11)

(단위: 억 달러, 비중%)

순위	원유			천연가스(PNG)			석유제품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1	캐나다	902	(58.5)	캐나다	49	(100.0)	캐나다	115	(21.9)
2	멕시코	113	(7.3)	멕시코	0	(0.0)	한국	41	(7.9)
3	사우디아라비아	77	(5.0)	-	-	-	멕시코	39	(7.4)
-	전 세계	1,542	(100.0)	전 세계	49	(100.0)	전 세계	526	(100.0)

주: 원유(HS 270900), 천연가스(HS 271121), 석유제품(HS 2710)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보편관세) 이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10~20%p 수준의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음

\* 美 재무장관은 보편관세 2.5%p에서 시작해 최고 관세율 20%p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힘(1/28)

▶ (타겟관세) 트럼프 美 대통령은 수개월 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가능성 발언(1/31)

-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주요 수입대상국은 대만(39.4%), 말레이시아(14.0%), 한국(9.6%) 등
- (철강) 한국의 미국 철강 수입시장 내 비중은 5위(6.3%)이나 한국은 2024년 기준 전체 철강 수출의 14%를 미국으로 수출

#### 미국 반도체 수입 상위국('24.1~11)

(단위: 억 달러,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대만	332	(39.4)
2	말레이시아	118	(14.0)
3	한국	81	(9.6)
4	중국	73	(8.7)
5	베트남	65	(7.7)
-	전 세계	843	(100.0)

주: HS 8541, 8542, 847330 합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미국 철강 수입 상위국('24.1~11)

(단위: 억 달러,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캐나다	121	(16.2)
2	중국	113	(15.1)
3	멕시코	96	(12.9)
4	브라질	47	(6.3)
5	한국	47	(6.3)
-	전 세계	746	(100.0)

주: HS 72, 73 합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알루미늄·의약품) 미국의 對한국 수입 비중이 낮아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미국 알루미늄 수입 상위국('24.1~11)** (단위: 억 달러, 비중%) **미국 의약품 수입 상위국('24.1~11)** (단위: 억 달러,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캐나다	104	(41.3)	1	인도	111	(12.8)
2	중국	27	(10.7)	2	아일랜드	108	(12.4)
3	멕시코	17	(6.7)	3	스위스	100	(11.5)
4	아랍에미리트 연합	11	(4.4)	4	이탈리아	65	(7.5)
5	한국	8	(3.2)	5	중국	55	(6.3)
-	전 세계	252	(100.0)	29	한국	1	(0.1)
-				-	전 세계	869	(100.0)

주: HS 76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주: HS 3003, 3004 합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는 자국내 제조업 생산 및 세수 증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함

- 특히 對중국 관세 인상폭은 對中 견제 강화를 위해 대선 기간 예고했던 60%p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동 관세 정책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관세의 무기화’ 전략이라는 해석 제시
  - 미국이 제시한 요구를 수용하자 對콜롬비아 관세 부과 보류(1/26), 對캐나다·멕시코 관세는 30일 유예 조치(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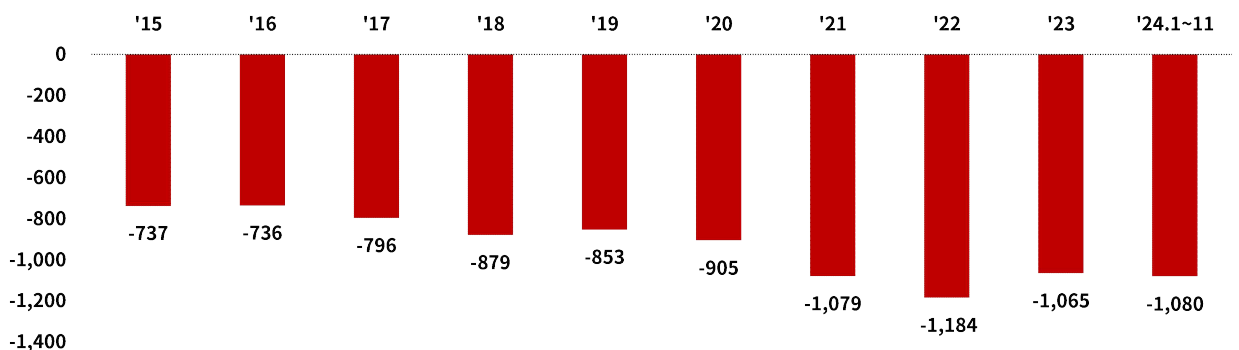
## 2. 관세조치 관련 미국 수입 동향

### ▶ (무역수지) 미국은 대표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최근 對세계 수입이 증가하며 2024년(1~11월) 기준 약 1조 801억 달러 적자 기록

- 미국의 연간 對세계 수입액이 2021년부터 약 3조 달러 내외에 달해, 미국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1조 달러 상회

**미국의 대세계 무역수지 추이('15~'24.11)**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 (국가별) 한국은 미국 수입시장 내 7위(4.0%)에 달하는 상위 수입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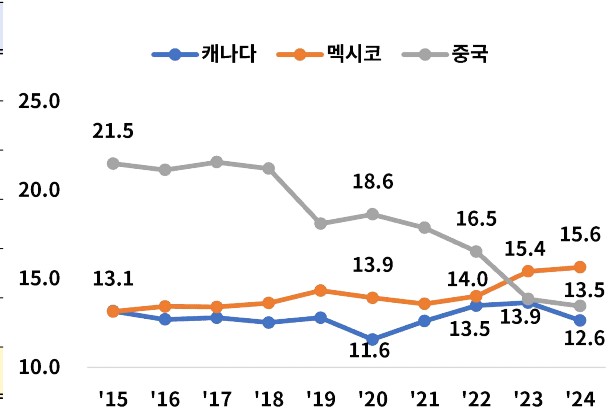
- 중국·캐나다·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3개국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8% 수준
- 2023년부터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수입대상국 1위로 부상
-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어진 對중국 관세 및 견제 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對中 수입 비중이 빠르게 감소

미국의 주요 수입대상국('24.1~11) (단위: 억달러,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멕시코	4,666	(15.6)
2	중국	4,014	(13.5)
3	캐나다	3,772	(12.6)
4	독일	1,467	(4.9)
5	일본	1,358	(4.6)
6	베트남	1,248	(4.2)
7	한국	1,205	(4.0)
-	전 세계	29,82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미국의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 비중 (단위: 비중%)



주: '24년은 1~11월 누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 (품목별) 미국은 중국·멕시코에서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 공산품을 위주로 수입

- 반면 미국의 대캐나다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됨

미국의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주요 수입 품목('24.1~11)

(단위: 억달러, 비중%)

순위	對중국 수입				對캐나다 수입				對멕시코 수입			
	품목	수입액	비중		품목	수입액	비중		품목	수입액	비중	
1	무선통신기기	463	(11.5)		원유	902	(23.9)		승용차	453	(9.7)	
2	컴퓨터	336	(8.4)		승용차	262	(6.9)		컴퓨터	433	(9.3)	
3	배터리	158	(3.9)		기타	138	(3.7)		화물자동차	342	(7.3)	
4	스쿠터	125	(3.1)		석유제품	115	(3.0)		자동차부품	339	(7.3)	
5	자동차부품	86	(2.1)		자동차부품	106	(2.8)		전선·케이블	152	(3.3)	
6	모니터	62	(1.5)		석유가스, 탄화수소	74	(2.0)		원유	113	(2.4)	
7	가정용 전열기기	61	(1.5)		알루미늄괴	71	(1.9)		의료기기	111	(2.4)	
8	컴퓨터 부품	60	(1.5)		화물자동차	65	(1.7)		무선통신기기	96	(2.1)	
9	의자	60	(1.5)		터빈	55	(1.5)		트랙터	92	(2.0)	
10	게임용구	59	(1.5)		항공우주제품	54	(1.4)		모니터	91	(2.0)	
-	전 품목	4,014	(100.0)		전 품목	3,772	(100.0)		전 품목	4,666	(100.0)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3. 트럼프 2기 관세조치 시나리오 및 파급경로

▶ **(시나리오)** 2/5일 기준 행정명령으로 예고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 및 보편관세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3단계의 분석 시나리오를 구성

- (1단계) 중국에만 단독으로 관세 10%p 인상하는 시나리오로, 2/5 기준 현 상황에 해당
- (2단계) 對중국 관세 10%p 인상에 더해, 2/4일부로 한 달간 유예된 對캐나다(에너지는 10%p)·멕시코 25%p 관세 인상조치까지 실현될 경우에 해당
- (3단계) 對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조치에 대해 보편관세를 10%p 부과하는 시나리오로, 최종적으로 중국 20%p, 캐나다(에너지는 20%p)·멕시코 35%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 트럼프 2기 관세조치 영향 분석 시나리오(누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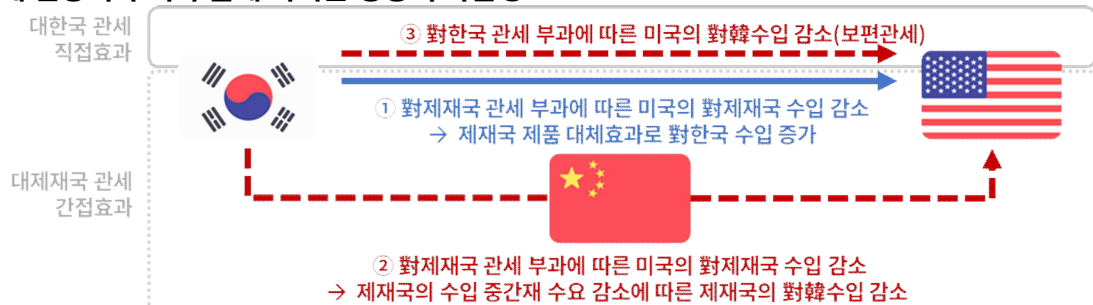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對중국	10%p	10%p	20%p
對캐나다	-	25%p	35%p
캐나다산 에너지	-	10%p	20%p
對멕시코	-	25%p	35%p
對기타국	-	-	10%p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파급경로)** 관세 인상 시 ①對美 수출 반사이익(+), ②한국의 對제재국 중간재 수출 감소(-), ③보편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의 경로로 우리나라에 영향

- (①반사이익)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해외 제재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 내 제재국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수요가 한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한국의 對美 수출 증가
- (②중간재 수출 감소) 미국이 해외 제재국에 대해 관세 인상 시, 제재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하면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동반 감소
- (③직접효과) 미국이 보편관세로 對한국 관세를 인상할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로 對美 수출 감소

#### 미국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분석방법) 관세조치 시나리오에 따른 ❶ 반사이익과 ❸ 직접영향은 실증분석으로, ❷ 중간재 수출 감소의 영향은 실증분석과 세계산업연관분석을 종합하여 추정

- 실증분석은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관세율 자료와 한국무역협회 K-stat 및 UN Comtrade의 수입데이터를, 세계산업연관분석은 ADB MRIO(2023년 기준)를 사용

**[참고 1]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수입 변화 분석 모형**(對중국 관세 부과 기준, ❶+❸ 효과)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제공하는 관세율 자료를 기반으로 2017년 1월~2024년 11월까지의 월별·국가별·품목별(HS8단위) 관세율 데이터를,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동기간 미국의 월별·국가별·품목별(HS8단위) 수입 데이터를 이용
- 선행연구<sup>1)</sup>에 기반하여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축

$$\Delta \ln M_{jkt} = \beta_0 + \beta_1 \Delta \ln (1 + \tau_{jkt}) + \beta_2 \text{Share}_{jk} + \beta_3 \text{Share}_{jk} \Delta \ln (1 + \tau_{ckt}) + \underbrace{\eta_{Kj} + \eta_{Kt} + \eta_{jt}}_{\text{고정효과}} + \epsilon$$

$\tau_{jkt}$ : t시점 미국이 j국으로부터의 k품목 수입에 부과한 관세율  
 $\tau_{ckt}$ : t시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k품목 수입에 부과한 관세율  
 $\text{Share}_{jk}$ : (미국의 k품목 대세계 수입 중 중국 비중) × (중국 제외 미국의 k품목 수입 중 j국 비중)

$\Delta \ln M_{jkt}$ : t시점 미국의 대j국 k품목 수입 금액(USD)  
 $\eta_{Kj}$ : 미국의 k품목 대세계 수입 중 중국 비중  
 $\eta_{Kt}$ : (중국 제외 미국의 k품목 수입 중 j국 비중)  
 $\eta_{jt}$ : 고정효과

- $j$ : 수출국 (수입국은 미국으로 고정)
- $k$ : 품목 ( $K$ =업종,  $k \in K$ )
- $t$ : 연월
- 기존 선행연구는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을 추정하기 위한  $\text{Share}_{jk}$  항을  $j$ 국가의 비중만 이용하여 계산했으나, 이 경우 중국의 기존 수입시장 점유율이 0%인 경우에도 반사이익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는  $\text{Share}_{jk}$  항을 계산할 때  $j$ 국가의 비중과 함께 중국의 비중도 종합적으로 고려

**계수 추정치 및 함의**

계수	추정치	설명
$\beta_1$	-1.120***	■ 미국의 대j국 관세가 1% 변화할 때 미국의 대j국 수입 변화율 (보편관세의 직접효과)
$\beta_3$	1.160**	■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1% 변화할 때 미국의 대j국 수입 변화율 (對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 국가별 수입점유율에 비례)

주: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Lovely, Xu, Zhang(2021), "Collateral Benefits? South Korea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US-China Trade War",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참고 2]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석 모형(② 효과)

- 세계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국가별 최종수요에 따른 중간재의 수출 흐름을 분석. 특정 국가에 수출된 중간재가 해당국의 내부 수요에 의한 것인지, 혹은 여타국의 최종수요를 위해 가공 후 다시 수출되는 것인지 구분
- 1차 중간재 생산국(k국)으로부터 이를 수입한 국가(c국)가 상품을 가공한 후 제3국(r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우회수출'로 추정하고자 함
  - c국에서 r국으로 우회수출되는 품목은 중간재·최종재 여부와 무관하게, r국의 수요에 의해 수출되어 최종적으로 r국 내에서 소비 (r국 외 국가로 수출되지 않음)



-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석 모형

$$e_r^{kc} = A^{kc} [(I - A)^{-1} f_r]$$

$e_r^{kc}$ : r국가의 최종수요가 유발한 k국가의 대c국 수출  
 $A^{kc}$ : c국에서의 생산유발액  
 $[(I - A)^{-1} f_r]$ : r국가의 최종수요  
 c국가의 대k국 수입 중간재 투입계수 행렬

## [참고 3] HS-업종 연계표

업종	HS2	설명	업종	HS2	설명	업종	HS2	설명
1	01~05	동물·동물성생산물	8	41~43	가죽제품	15	72~83	철강·비철금속
2	06~14	식물·식물성생산물	9	44~46	목재제품	16	84~85	전기·전자제품
3	15	유지류	10	47~49	펄프·종이제품	17	86~89	수송기기
4	16~24	음식료품·기호식품	11	50~63	섬유제품	18	90~92	광학기기·악기류
5	25~27	광물성 연료	12	64~67	의류·잡화	19	93	방산제품
6	28~38	화학공업생산물	13	68~70	도기·유리제품	20	94~96	가구·완구·기타제품
7	39~40	플라스틱·고무제품	14	71	귀금속	21	97	예술품 및 골동품



## 4. 트럼프 2기 관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시나리오1

## 對중국 10%p 관세 인상

▶ (전체 효과①+②)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4.1억 달러 감소(-0.1%)할 것으로 추정(對미국 수출 +0.3%, 對중국 수출 -0.6%)

- (對미국)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은 4.0억 달러(0.3%) 증가할 것으로 추정
- (對중국) 중국의 대미 수출은 8.7% 감소하여 한국의 대중 수출은 0.6% 감소

(시나리오1) 對중국 10%p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억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구분	기존 수출 (2024년)	對미국 반사이익①	對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②	전체 효과 ①+②
對미국 수출	1,278	4.0 (0.3)		4.0 (0.3)
對중국 수출	1,330		-8.1 (-0.6)	-8.1 (-0.6)
對세계 수출	6,837	4.0 (0.1)	-8.1 (-0.1)	-4.1 (-0.1)

주: 각 금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한국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반사이익①) 반사이익으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율(0.31%)은 주요국 중 높은 수준

- 對중국 10%p 관세 인상 시 한국의 對美 반사이익 비율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30개국 중 10번째로 상대적으로 준수한 수준
- 일반적으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반사이익이 크나, 한국은 점유율이 더 높은 일본, 독일보다 더 큰 반사이익이 보이며 선전

(시나리오1) 對중국 10%p 관세 인상 시 주요국의 對美 반사이익 비율

(단위:'24.1~11월 대비 비율%)



주: 각국의 '24.1~11월 총수출 대비 반사이익의 비율, 분석 대상 30개국은 최근 3개년('22~'24) 평균 미국 수입액 기준 상위국

자료: USITC,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



## 시나리오2

## 對중국 10%p + 對캐나다·멕시코 25%p (캐나다 에너지 10%p)

\* 캐나다 에너지는 10%p로, 본 보고서는 원유(HS 270900), 천연가스(HS 271121), 석유제품(HS 2710)에 적용하여 분석

▶ **(전체 효과①+②)** 한국의 총수출은 2.2억 달러 감소(-0.03%)할 것으로 추정(對미국 수출 +1.5%,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수출 각 -0.5%, -2.5%, -9.1%)

- (對미국) 반사이익으로 대미 수출은 19.6억 달러(1.5%) 증가할 것으로 추정
- (對중국) 중국의 대미 수출은 7.3% 감소하여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0.5% 감소
- (對캐나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16.7% 감소하여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2.5% 감소
  - 캐나다는 對미국 자원 수출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對멕시코)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20.5% 감소하여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9.1% 감소
  - 멕시코는 미국向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아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가 우리 수출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

**(시나리오2) 對중 10%p, 캐·멕 25%p 인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억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구분	기존 수출 (2024년)	對미국 반사이익①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중간재 수출 감소②	전체 효과 ①+②
對미국 수출	1,278	19.6 (1.5)		19.6 (1.5)
對중국 수출	1,330		-6.8 (-0.5)	-6.8 (-0.5)
對캐나다 수출	104		-2.6 (-2.5)	-2.6 (-2.5)
對멕시코 수출	136		-12.4 (-9.1)	-12.4 (-9.1)
對세계 수출	6,837	19.6 (0.3)	-21.7 (-0.3)	-2.2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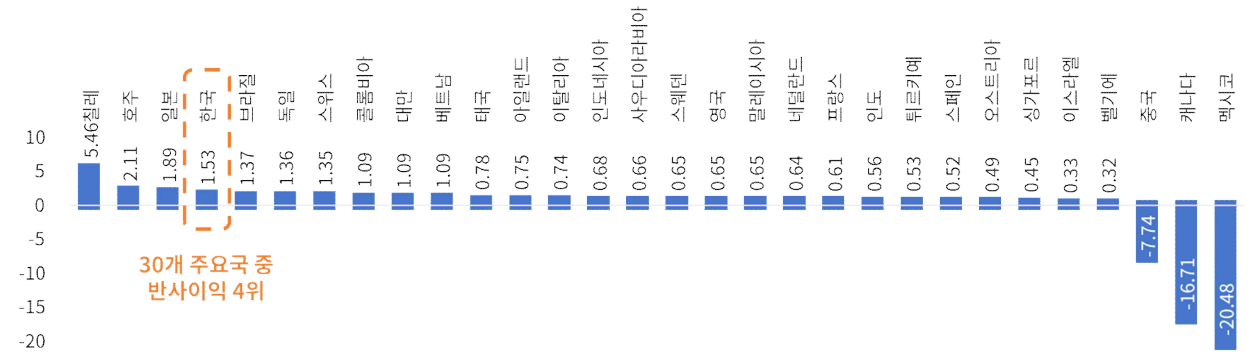
주1: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해서는 10%p로 예외 적용

주2: 각 금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한국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반사이익①)** 반사이익으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1.53%)은 주요국 30개국 중 4위

**(시나리오2) 對중 10%p, 캐·멕 25%p 인상 시 주요국의 對美 반사이익 비율** (단위: '24.1~11월 대비 비율%)



주1: 캐나다산 에너지에 대해서는 10%p로 예외 적용

주2: 각국의 '24.1~11월 총수출 대비 반사이익의 비율, 분석 대상 30개국은 최근 3개년('22~'24) 평균 미국 수입액 기준 상위국

자료: USITC,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

### 시나리오3

**對중 10%p + 對캐·멕 25%p (캐나다 에너지 10%p) + 보편관세 10%p**

#### (1) 총괄

▶ **(전체 효과①+②+③)** 총수출은 132.4억 달러 감소(-1.9%) 추정(對미국 수출 -7.9%,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수출 각 -1.0%, -3.2%, -11.5%)

- (對미국) 對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인상의 반사이익으로 2.3% 증가하나, 보편관세 10%p 도입의 직접효과로 대미 수출은 10.1% 감소해 최종적인 대미 수출 감소폭은 7.9%로 추정

**(시나리오3) 對중 10%p, 캐·멕 25%p, 보편관세 10%p의 우리 수출 영향** (단위:억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구분	기존 수출 (2024년)	對미국 반사이익①	對중국·캐나다·멕시코 중간재 수출 감소②	보편관세의 직접효과③	전체 효과 ①+②+③
對미국 수출	1,278	29.0 (2.3)		-129.3 (-10.1)	-100.3 (-7.9)
對중국 수출	1,330		-13.0 (-1.0)		-13.0 (-1.0)
對캐나다 수출	104		-3.3 (-3.2)		-3.3 (-3.2)
對멕시코 수출	136		-15.7 (-11.5)		-15.7 (-11.5)
對세계 수출	6,837	29.0 (0.4)	-32.0 (-0.5)	-129.3 (-1.9)	-132.4 (-1.9)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주2: 각 금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한국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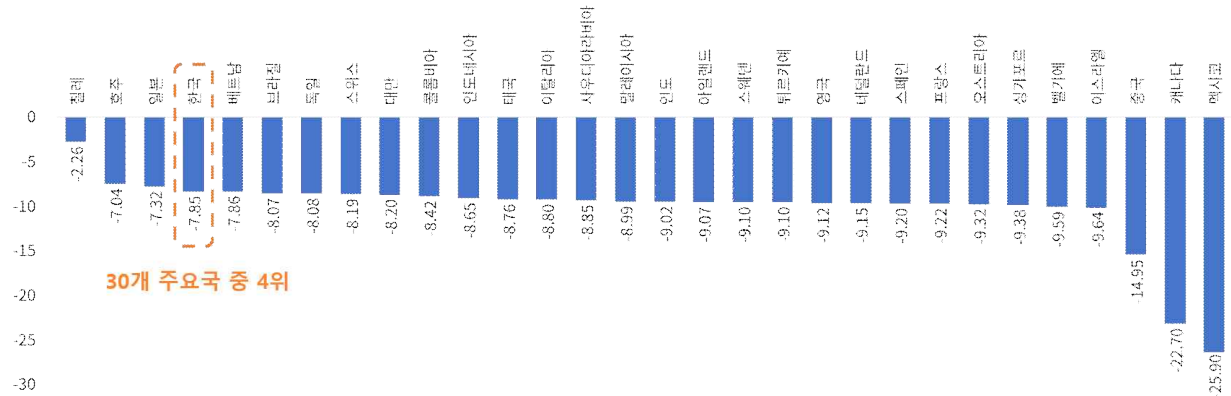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2) 對미국

###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감소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7.85%)

-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율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30개국 중 4번째로 타격이 적음
  - (직접효과③) 보편관세 도입의 직접영향(-10.1%)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미 FTA로 기존 미국의 對한국 관세가 매우 낮아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가 주요국 대비 크기 때문
    - \* 관세율이 동일하게 10%p 인상되더라도, 20%→30%보다 0%→10%일 때 수출이 더 크게 감소
  - (반사이익①) 자동차, 가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크게 나타나 대미 수출 감소 폭을 일부 상쇄
  - (①+③) 미국의 주요 수입국 중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美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베트남 대비 대미 수출 타격이 적은 점은 긍정적
    - \* 美 7대 수입대상국('24.1~11, 비중%) : (멕시코) 15.6 (중국) 13.5 (캐나다) 12.6 (독일) 4.9 (일본) 4.6 (베트남) 4.2 (한국) 4.0

(시나리오3) 對중 10%p, 캐·멕 25%p, 보편관세 10%p 시 주요국의 對美 수출 증가율 (단위: '24.1~11월 대비 비율%)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주2: 각국의 '24.1~11월 총수출 대비 반사이익의 비율, 분석 대상 30개국은 최근 3개년('22~'24) 평균 미국 수입액 기준 상위국

자료: USITC, UN Comtrade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

### ▶ 산업별로는 수송기기와 전기·전자제품 등 한·중·캐·멕 간 경합이 치열한 산업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

- 보편관세 도입으로 인한 직접효과는 모든 산업에서 -10.1%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반사이익은 수송기기(2.6%, 12억 달러) 및 전기·전자제품(1.2%, 6억 달러)에서 큰 것으로 분석

## (시나리오3) 對中·캐·멕·보편관세 부과의 산업별 對美 수출 영향

(단위:백만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	산업	기존수출 (2024년, a)	반사이익①		직접효과③		전체 효과①+③	
			금액(b)	증가율(b/a)	금액(c)	증가율(c/a)	금액(d)	증가율(d/a)
1	동물·동물성생산물	191	4	(1.9)	-19	(-10.1)	-13	(-6.9)
2	식물·식물성생산물	160	2	(1.3)	-16	(-10.1)	-13	(-8.1)
3	유지류	104	1	(0.7)	-11	(-10.1)	-10	(-9.4)
4	음식료품·기호식품	1,481	17	(1.1)	-148	(-10.0)	-123	(-8.3)
5	광물성 연료	5,495	119	(2.2)	-556	(-10.1)	-405	(-7.4)
6	화학공업생산물	8,219	88	(1.1)	-832	(-10.1)	-729	(-8.9)
7	플라스틱·고무제품	5,763	57	(1.0)	-583	(-10.1)	-450	(-7.8)
8	가죽제품	47	0	(0.1)	-5	(-10.1)	-4	(-9.6)
9	목재제품	16	0	(0.4)	-2	(-10.1)	-2	(-9.7)
10	펄프·종이제품	777	6	(0.8)	-79	(-10.1)	-69	(-8.9)
11	섬유제품	1,201	8	(0.6)	-121	(-10.1)	-99	(-8.2)
12	의류·잡화	83	0	(0.1)	-8	(-10.1)	-7	(-8.8)
13	도기·유리제품	516	3	(0.6)	-52	(-10.1)	-47	(-9.1)
14	귀금속	633	8	(1.3)	-64	(-10.1)	-56	(-8.8)
15	철강·비철금속	7,800	100	(1.3)	-789	(-10.1)	-656	(-8.4)
16	전기·전자제품	47,573	552	(1.2)	-4,815	(-10.1)	-3,658	(-7.7)
17	수송기기	44,166	1,169	(2.6)	-4,470	(-10.1)	-3,277	(-7.4)
18	광학기기·악기류	2,494	8	(0.3)	-252	(-10.1)	-240	(-9.6)
19	방산제품	214	0	(0.2)	-22	(-10.1)	-21	(-9.9)
20	가구·완구·기타제품	769	2	(0.3)	-78	(-10.1)	-70	(-9.1)
21	예술품 및 골동품	86	0	(0.3)	-9	(-10.1)	-8	(-9.6)
22	기타	0	0	(0.2)	0	(-10.1)	0	(-9.9)
-	전 산업	127,786	2,899	(2.3)	-12,931	(-10.1)	-10,032	(-7.9)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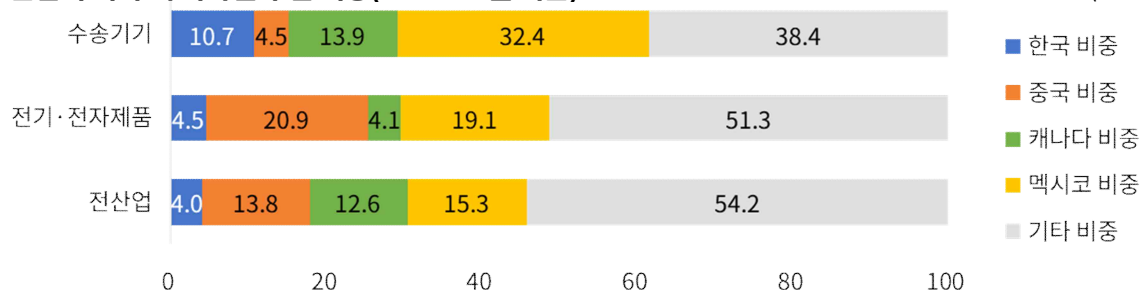
주2: 각 금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한국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반사이익 규모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관세조치 대상국과의 경합에 따라 달라지며, 경쟁관계일수록 큼
- 수송기기와 전기·전자제품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캐나다·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산업 대비 커 관세 인상 시 한국산 제품으로의 대체효과가 큼

## 주요 산업의 미국 내 국가별 수입 비중('24.1~11월 기준)

(단위:비중%)



자료: UN Comtrade

### (3) 對중국

▶ 전기·전자제품, 화학공업 생산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 감소(-1.0%)

- 對中 수출에서 미국 최종 귀착 비중\*이 높거나 기존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이 큰 산업일수록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큼

\* 美 최종 귀착 비중은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중 미국 최종수요를 위해 중국 내 가공되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

\*\* 한국 對중국 수출의 美 최종 귀착 비중 전 산업 평균은 5.7% 수준

-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미국 최종 귀착 비중은 8.0%로 모든 산업 중 가장 크며, 해당 산업의 대중국 수출 감소율(-1.1%)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3) 對중·캐·맥·보편관세 부과의 산업별 對中 수출 영향

(단위:백만 달러, 동기비 비율%)

#	산업	중국의 對美 수출			한국의 對중국 수출			
		기존수출 ( <sup>'24.1~11, a</sup> )	금액 (b)	증가율 (b/a)	美 최종 귀착 비중	기존수출 ( <sup>'24년, c</sup> )	금액 (d)	증가율 (d/c)
1	동물·동물성생산품	1,501	-180	(-12.0)	2.1	399	-1	(-0.3)
2	식물·식물성생산품	1,358	-208	(-15.3)	2.1	150	0	(-0.3)
3	유지류	851	-179	(-21.1)	0.6	8	0	(-0.1)
4	음식료품·기호식품	2,602	-383	(-14.7)	0.6	1,314	-1	(-0.1)
5	광물성 연료	668	-131	(-19.7)	3.2	4,595	-29	(-0.6)
6	화학공업생산품	21,184	-3,461	(-16.3)	5.4	20,713	-183	(-0.9)
7	플라스틱·고무제품	22,847	-3,135	(-13.7)	6.1	10,613	-89	(-0.8)
8	가죽제품	3,316	-404	(-12.2)	4.9	117	-1	(-0.6)
9	목재제품	2,354	-293	(-12.4)	6.7	6	0	(-0.8)
10	펄프·종이제품	4,979	-638	(-12.8)	4.6	452	-3	(-0.6)
11	섬유제품	28,658	-4,116	(-14.4)	6.2	1,393	-12	(-0.9)
12	의류·잡화	13,760	-2,030	(-14.8)	6.2	129	-1	(-0.9)
13	도기·유리제품	5,923	-837	(-14.1)	3.4	1,375	-7	(-0.5)
14	귀금속	1,760	-274	(-15.6)	3.4	131	-1	(-0.5)
15	철강·비철금속	24,523	-3,519	(-14.4)	5.1	7,711	-57	(-0.7)
16	전기·전자제품	212,568	-29,425	(-13.8)	8.0	76,773	-851	(-1.1)
17	수송기기	18,093	-2,009	(-11.1)	3.4	1,685	-6	(-0.4)
18	광학기기·악기류	12,771	-1,856	(-14.5)	8.0	5,171	-60	(-1.2)
19	방산제품	171	-25	(-14.4)	1.4	0	0	(-0.2)
20	가구·완구·기타제품	57,983	-8,315	(-14.3)	2.1	293	-1	(-0.3)
21	예술품 및 골동품	113	-13	(-11.9)	1.6	9	0	(-0.2)
22	기타	10,054	-1,796	(-17.9)	2.8	0	0	-
-	전 산업	448,036	-63,229	(-14.1)	5.7	133,036	-1,303	(-1.0)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주2: 한국의 對中 수출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주3: 한국의 對中 수출액(d) =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b/a) \* (美 최종 귀착 비중) \* 기존 한국의 대중 수출액(c)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4) 對캐나다

▶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전기·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 감소(-3.2%)

-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의 미국 최종 귀착 비중은 철강·비철금속(41.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시나리오3) 對중·캐·멕시코·보편관세 부과의 산업별 對加 수출 영향

(단위:백만 달러, 동기비 비율%)

#	산업	캐나다의 對美 수출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			
		기존수출 ('24.1~11, a)	금액 (b)	증가율 (b/a)	美 최종 귀착 비중	기존수출 ('24년, c)	금액 (d)	증가율 (d/c)
1	동물·동물성생산물	9,528	-1,905	(-20.0)	10.0	17	0	(-2.0)
2	식물·식물성생산물	7,819	-1,613	(-20.6)	10.0	22	0	(-2.1)
3	유지류	4,664	-1,078	(-23.1)	1.7	4	0	(-0.4)
4	음식료품·기호식품	19,506	-4,895	(-25.1)	1.7	196	-1	(-0.4)
5	광물성 연료	121,815	-19,009	(-15.6)	11.1	235	-4	(-1.7)
6	화학공업생산물	22,724	-5,951	(-26.2)	20.4	280	-15	(-5.3)
7	플라스틱·고무제품	16,031	-4,286	(-26.7)	40.8	407	-44	(-10.9)
8	가죽제품	119	-30	(-25.5)	3.7	11	0	(-1.0)
9	목재제품	10,726	-2,939	(-27.4)	18.6	1	0	(-5.1)
10	펄프·종이제품	8,925	-2,158	(-24.2)	21.9	39	-2	(-5.3)
11	섬유제품	1,403	-379	(-27.0)	14.2	98	-4	(-3.8)
12	의류·잡화	84	-21	(-25.5)	14.2	4	0	(-3.6)
13	도기·유리제품	1,734	-459	(-26.5)	16.6	22	-1	(-4.4)
14	귀금속	7,674	-1,974	(-25.7)	16.6	35	-1	(-4.3)
15	철강·비철금속	30,815	-8,125	(-26.4)	<b>41.0</b>	953	<b>-103</b>	(-10.8)
16	전기·전자제품	38,072	-10,217	(-26.8)	11.4	2,352	<b>-72</b>	(-3.0)
17	수송기기	55,494	-14,768	(-26.6)	5.5	5,545	<b>-81</b>	(-1.5)
18	광학기기·악기류	4,363	-1,204	(-27.6)	11.4	97	-3	(-3.1)
19	방산제품	209	-59	(-28.0)	5.3	4	0	(-1.5)
20	가구·완구·기타제품	6,325	-1,608	(-25.4)	8.9	30	-1	(-2.3)
21	예술품 및 골동품	119	-32	(-27.2)	10.1	0	0	(-2.7)
22	기타	17,777	-4,906	(-27.6)	15.2	0	0	-
-	전 산업	385,925	-87,616	(-22.7)	16.1	10,352	-333	(-3.2)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주2: 한국의 對加 수출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5) 對멕시코

▶ 전기·전자제품,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순으로 對멕시코 수출액 감소(-11.5%)

- 수송기기, 전기·전자제품, 철강·비철금속 모두 對멕시코 수출 내 미국 최종 귀착 비중이 높으면서 기존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액이 큰 산업에 해당

(시나리오3) 對중·캐·멕·보편관세 부과의 산업별 對墨 수출 영향

(단위:백만 달러, 동기비 비율%)

#	산업	멕시코의 對美 수출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			
		기존수출 ('24.1~11, a)	금액 (b)	증가율 (b/a)	美 최종 귀착 비중	기존수출 ('24년, c)	금액 (d)	증가율 (d/c)
1	동물·동물성생산물	3,915	-644	(-16.4)	20.0	1	0	(-3.3)
2	식물·식물성생산물	20,512	-4,643	(-22.6)	20.0	4	0	(-4.5)
3	유지류	604	-155	(-25.7)	3.6	1	0	(-0.9)
4	음식료품·기호식품	21,183	-5,217	(-24.6)	3.6	43	0	(-0.9)
5	광물성 연료	16,370	-4,392	(-26.8)	13.5	54	-2	(-3.6)
6	화학공업생산물	6,817	-1,760	(-25.8)	45.9	291	-34	(-11.8)
7	플라스틱·고무제품	12,043	-3,206	(-26.6)	51.9	1,182	-163	(-13.8)
8	가죽제품	327	-91	(-27.7)	8.7	1	0	(-2.4)
9	목재제품	694	-171	(-24.6)	44.0	3	0	(-10.8)
10	펄프·종이제품	2,023	-500	(-24.7)	44.7	67	-7	(-11.0)
11	섬유제품	4,864	-1,267	(-26.1)	34.7	156	-14	(-9.1)
12	의류·잡화	1,105	-295	(-26.7)	34.7	1	0	(-9.3)
13	도기·유리제품	4,105	-1,069	(-26.0)	23.2	35	-2	(-6.0)
14	귀금속	5,260	-1,294	(-24.6)	23.2	3	0	(-5.7)
15	철강·비철금속	16,412	-4,070	(-24.8)	<b>34.9</b>	3,231	<b>-280</b>	(-8.7)
16	전기·전자제품	177,936	-46,102	(-25.9)	<b>45.9</b>	5,774	<b>-687</b>	(-11.9)
17	수송기기	129,066	-34,180	(-26.5)	<b>53.9</b>	2,224	<b>-317</b>	(-14.3)
18	광학기기·악기류	21,359	-5,850	(-27.4)	45.9	413	-52	(-12.6)
19	방산제품	78	-22	(-27.6)	8.0	1	0	(-2.2)
20	가구·완구·기타제품	14,482	-3,817	(-26.4)	21.2	122	-7	(-5.6)
21	예술품 및 골동품	87	-24	(-27.1)	12.8	0	0	(-3.5)
22	기타	11,200	-3,077	(-27.5)	27.6	0	0	-
-	전 산업	470,445	-121,845	(-25.9)	38.9	13,607	-1,568	(-11.5)

주1: 최종적으로 對중국 20%p, 캐나다·멕시코 35%p, 캐나다 에너지 20%p, 기타국 10%p 관세 인상 효과

주2: 한국의 對墨 수출액은 '24.1~11월 기준 비율을 기반으로 2024년 연간 수출액으로 추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USITC, UN Comtrade, ADB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5.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트럼프 2기 관세조치 영향 분석 (시나리오 1~3)

(단위:억 달러, 2024년 대비 비율%)

수출대상국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1		시나리오1+對캐나다·멕시코 25%p (캐나다산 에너지 10%p)		시나리오2+보편관세 10%p	
	對중국 10%p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미국	4.0	( 0.3)	19.6	( 1.5)	-100.3	( -7.9)
對중국	-8.1	(-0.6)	-6.8	(-0.5)	-13.0	( -1.0)
對캐나다	-	-	-2.6	(-2.5)	-3.3	( -3.2)
對멕시코	-	-	-12.4	(-9.1)	-15.7	(-11.5)
對세계	-4.1	(-0.1)	-2.2	( -0.03)	-132.4	( -1.9)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對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월 5일 현재 10%p 관세가 부과된 중국을 포함해 향후 캐나다·멕시코에 25%p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대세계 수출 감소폭은 0.03%~0.1% 수준에 불과

#### ▶ 보편관세 부과 여부가 수출 감소의 변곡점으로, 향후 전면적으로 10%p의 보편관세 시행 시 미국의 총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대세계 수출은 1.9% 감소 예상

- 한편,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타격이 비교적 적은 편

\* 對중 10%p, 캐·멕 25%p, 보편관세 10%p 시 주요국 對美 수출 증가율('24.1~11월 대비 비율%)

: (칠레) -2.26 (호주) -7.04 (일본) -7.32 (한국) -7.85 (베트남) -7.86 (독일) -8.08

-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 기존 무역협정, 무역상대국 환율정책 등을 4월까지 평가 후 보편관세 부과 여부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보편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이며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제약 존재

- 더불어, 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 특정 품목 타겟의 관세 조치도 현실화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 관세 부과 대상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지난 2월 4일 미국의 대중 수입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보복조치 발표

- 2월 10일부터 원유·농기계·픽업트럭 등의 대미 수입에 10%p 추가 관세, 석탄·LNG 수입에 15%p 추가 관세 부과 예고(2/4)

-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광물에 대하여 수출 통제 발표(2/4)

- ▶ 관세조치 장기화 및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계 경제·교역이 둔화될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
  - 동 분석 결과는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대세계 수입 축소 및 美 수입대상국 간 대체효과만 고려
- ▶ 보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기 전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중간재 수출 등을 통해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함
  - 경제사절단 파견 및 美 정·재계 인사와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의 대미 경제 기여도 홍보
  - 2월 중 국내 20대 그룹 대표('25.2.19.~20.), 국회 특별방문단('25.2.10.) 등의 워싱턴DC 방문이 예정됨
  - 중소기업중앙회(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5.4.17.~20.), 한국무역협회('25.3월 및 5월) 등 경제단체도 2025년 상반기 대미 아웃리치 추진 중